朝鮮日報

發行所 京城府三角町七十一番地 朝鮮日報社 電話二三六番 振替口座京城四〇九九番
編輯兼發行人 徐丙肅(?)
印刷人 徐相(?)

定價 一部金五錢 一個月金八十錢(?) 六個月金四圓五十錢 一個年金八圓(?)
廣告料 五號活字十四字詰一行金二十錢 三號活字 … 七號活字 …

朝鮮人은先히朝鮮歷史를硏究하라

歷史는古今의治亂과得失을記ᄒᆞ야後人의鑑戒를垂ᄒᆞᄂᆞᆫ者라內外의歷史를勿論ᄒᆞ고詳細硏究ᄒᆞ야自家의前鑑을作ᄒᆞᆷ이可ᄒᆞ거니와他人의歷史부터深究ᄒᆞ야自己를捨ᄒᆞ고人을從ᄒᆞᆷ은先後가倒錯ᄒᆞ고本末이顚倒ᄒᆞᆷ이니先히自國의歷史를硏究ᄒᆞᆷ이可ᄒᆞ도다

大凡人은生ᄒᆞ면반듯시系統이有ᄒᆞ니自我가自我의系統을不知ᄒᆞ면엇지歷史가全無ᄒᆞᆫ未開地의土蕃人과異ᄒᆞ리오我朝鮮은四千餘年歷史가有ᄒᆞ야舊日文明이東亞列國에對ᄒᆞ야讓步치아니ᄒᆞᆷ이班々可考者ㅣ多ᄒᆞ도다 그러나文弱ᄒᆞᆫ時代가武强ᄒᆞᆫ時代보다多ᄒᆞ고반듯시支那大陸을隣接ᄒᆞᆷ으로恒常其文化를受ᄒᆞᆷ과同時에亦其國을崇拜ᄒᆞ야自國歷史보다支那國歷史를더探玩ᄒᆞ야幼時부터通鑑史略等만學ᄒᆞ얏스니엇지遺憾이아니리오然而有識階級은恒常自我의歷史를重視ᄒᆞ며自我의系統을尊敬ᄒᆞ야…史乘에記述ᄒᆞᆷ과先世의事蹟을…保管ᄒᆞ야…ᄒᆞ얏도다

二十世紀今日에至ᄒᆞ야世界門戶가大闢ᄒᆞ야西歐의文明이東西로輸入됨이疾風迅雨와如ᄒᆞ야우리社會에도數千年의深睡를大覺ᄒᆞ얏도다各種科學을硏究ᄒᆞᄂᆞᆫ同時에外國의歷史도亦硏究ᄒᆞ며從ᄒᆞ야學校教課에歷史科程을重要視ᄒᆞ고新進의人士ᄂᆞᆫ家庭마다案頭堆積ᄒᆞᆫ書籍中各國歷史가太半이나此點은ᄃᆞ다是로由ᄒᆞᆫ支那史를偏히嗜好ᄒᆞ든由來의習慣이漸次滅退되고自我의精神을浮揚ᄒᆞᆯ必要를感ᄒᆞᄂᆞᆫ듯ᄒᆞ도다

그러나自我의精神을浮揚ᄒᆞ라면先히自我의歷史부터講究ᄒᆞ고自我의系統부터認ᄒᆞ야야ᄒᆞᆯ지니ᄒᆞ미可ᄒᆞ거ᄂᆞᆯ只今何故인지十數年來로學校敎課에도朝鮮歷史는疎忽히ᄒᆞ며近日讀書ᄒᆞᄂᆞᆫ青年의案上에도自我의系統的인祖先의事蹟을鑑考ᄒᆞᆷ만ᄒᆞᆫ自我의歷史인書籍은求ᄒᆞ기難ᄒᆞ니甚히訝惑ᄒᆞᆷ을難堪ᄒᆞ깃도다

現今社會의青年諸君은獨負가勝ᄒᆞ고頭腦가明快ᄒᆞ고見識이透徹ᄒᆞ고勇敢이卓越ᄒᆞᆫ자라社會를爲ᄒᆞᄂᆞᆫ自我의精神을發揮코져ᄒᆞᆷ이騏驥가萬里를展ᄒᆞ랴ᄒᆞᆷ과大鵬이南溟을圖ᄒᆞ려ᄒᆞᆷ이나無異ᄒᆞ거ᄂᆞᆯ本源의修養이無ᄒᆞ면將來有爲의事業을成功ᄒᆞ리오

精神의本源은心志를修養ᄒᆞᆷ에在ᄒᆞᆷ이니得興과崇卑ᄂᆞᆫ擇ᄒᆞ야捨ᄒᆞ며尊重ᄒᆞ며所自出 本源을遡ᄒᆞ야自我가其由來ᄒᆞᆫ所以를知ᄒᆞ면自我의精神을修養ᄒᆞ얏다ᄒᆞ리니自我의歷史를硏究ᄒᆞ지아니ᄒᆞ고엇지自我를精神을修養ᄒᆞ얏다謂ᄒᆞᆯ수잇스리오

靑年諸君의言論이든지衆謂ᄒᆞᄂᆞᆫ바自我를系統의祖先의遺蹟을探究ᄒᆞ면自我의系統인祖先의遺蹟을冷眼視ᄒᆞᄂᆞᆫ氣色이잇스니엇지可歎ᄒᆞᆯ者ㅣ아니리오(그러치안인가) 우리社會의古昔事蹟이今日時機에適應치아니ᄒᆞ고舊日에는落日制度라謂ᄒᆞᆯ가適宜ᄒᆞᆫ줄노認ᄒᆞ야그러ᄒᆞᆷ이오當代에도適弊가余無ᄒᆞ다ᄒᆞᄂᆞᆫ것은안이나理解가不足ᄒᆞᆫ되서用ᄒᆞᆷ이라文明개强ᄒᆞᆫ未開時에일즉이…

農業과社會主義 (二)

少數로缺陷이업ᄂᆞᆫ것은아니거니와 … 歷史를輕視ᄒᆞᆷ은此로써自己의一家生活을支持ᄒᆞᆷ에不過ᄒᆞ고少ᄒᆞ면不足을感ᄒᆞ며有餘ᄒᆞ면…

…工業技術의著大ᄒᆞᆫ進步는現代의特徵이라産業革命以後에經濟界의進步는全혀生産技術의進步에件ᄒᆞᆫ者라見치안이치못ᄒᆞᆯ지오農業도亦其例를免치못ᄒᆞ야生産技術이大進步를ᄒᆞ얏도다又此의發展ᄒᆞ야도이然而此에不拘ᄒᆞ고農業은科學的硏究가盛行ᄒᆞ얏도다…

此不滿足ᄒᆞᆫ狀態의表現은種々의理由가有ᄒᆞ나最著明ᄒᆞᆫ者는土地私有制度니此를略言ᄒᆞ진ᄃᆡ何産業을不問ᄒᆞ고生産上에技術的進步를施用ᄒᆞ야生産이增加ᄒᆞ고…其可能的生産效果와實際的生産效果와의間에ᄂᆞᆫ常히大懸隔이有ᄒᆞ도다…

…剩餘價値는現代小作料로因ᄒᆞ야殆히全部가地主에게占取되고勞働者되ᄂᆞᆫ小作人은其餘剩價値를用ᄒᆞ야새技術上의新進步를生産에施用ᄒᆞᆷ에도此를施用ᄒᆞ기可ᄒᆞᆫ餘裕가有치안이ᄒᆞ고生産에依ᄒᆞ야…

性에對ᄒᆞᆫ世界的苦悶 (二)

此世界意志의盲目的努力은此世界를不絕ᄒᆞᄂᆞᆫ缺乏과苦惱의世界로作ᄒᆞᄂᆞᆫ者인故로從ᄒᆞ야人生의性的生活도亦同様으로不絕ᄒᆞᄂᆞᆫ缺乏과苦惱의世界가되ᄂᆞᆫ것이라ᄒᆞ야…性的生活에ᄂᆞᆫ「쇼펜하우에르」의性慾哲學이性的世界苦의哲學이라ᄒᆞᄂᆞᆫ主張이다

…「와이닌게르」의性的戀愛을世界意志의發動의結果로…

以上과如히性的世界苦의心的狀態를三種으로分說ᄒᆞ얏스니「뷔데긴도」와「메데르린구」의境遇에ᄂᆞᆫ此의運命的色彩를帶ᄒᆞᆫ個人的感情을對照ᄒᆞᆫ者이오「스토린드베르히」의境遇에ᄂᆞᆫ世…意志ᄂᆞᆫ形…取ᄒᆞ야個人的感情과人生主義的理想으로…

桂屋漫筆

俳諧雜選　桂下散人（四四）

…

不平과吾人 (二)

雲巷 李壽根

나、老人과青年間의不平

老人이青年에對ᄒᆞᆫ不平은近來로少年들은相當ᄒᆞᆫ經驗이無ᄒᆞ고驕慢放恣ᄒᆞ야俗에ᄀᆞᆯ오ᄃᆞᆺ「鷄口小兒」들이眼下無人으로千萬事에쟈만질ᄒᆞ며잘아도ᄃᆞᆺ이長者보다先頭에셔々ᄒᆞᆫ다ᄂᆞᆫ…

다、富貴者와貧賤者間의不平

富貴者가貧賤者에對ᄒᆞᆫ不平은自己의것으로衣食…

浮雲 (三九)

투게네프 原作　瀏鹿生 譯

(六)의七

「그朴大柱라ᄂᆞᆫ이ᄂᆞᆫ어ᄃᆡ가그러케…」

「무엇이라고말ᄒᆞᆫ가요?」…

老少 腎氣强壯劑

滋春屑

特劑 …

本舖 滋春屑 德盛堂 京城府淸進洞二百十一番地의一 高南壽

廣告

金銀都散賣

金光商會

純金首飾類 半指各形 白金眞珠寶石入半指等 時計紐 眼鏡 金箔 其他金屬專門製造都散賣

地方代金引換

主 金觀泳 李永莘

京城府貫鐵洞(?)…電話…

診療開始

外科 皮膚科 大東醫院

京城府樂園洞一四一

診察時間 自上午九時 至下午九時

千葉醫學士 李潤載

電話二七五六番

純고무底經便靴

特廉價大發賣

本商會에셔去年春부터硏究ᄒᆞᆫ고무底經便靴를發明ᄒᆞ야製造販賣ᄒᆞ온바意外에注文이踏至ᄒᆞ야從來製造數量으로ᄂᆞᆫ到底히供給ᄒᆞᆯ수업슴으로今般工場을擴張ᄒᆞ고一層精製ᄒᆞ야隨求酬應ᄒᆞ오니陸續注文ᄒᆞ심을望ᄒᆞᆷ니다

普通製品 壹足 壹圓二十錢
加房製特品 壹足 貳圓二十錢
同上品 壹足 壹圓八十錢
羽緞製特品 壹足 貳圓二十錢

其他原料品고무加房드發賣ᄒᆞᆷ는바多少不拘ᄒᆞ고注文에應ᄒᆞᆷ니다

各種洋襪製造都散賣

京城府鐘路四丁目四十六番地

京城物産商會

兼業廣告

本人이十餘年間從業ᄒᆞ옵든永泰昌洋靴店을大正八年四月分에他人에게讓渡ᄒᆞ옵고洋靴原料商에만從事ᄒᆞ옵던바京鄕間愛護ᄒᆞ옵시든諸位의勸告에依ᄒᆞ야…更히洋靴及經理…를自營販賣ᄒᆞ오니…廉과原料特品은勿論이오니倍前愛顧ᄒᆞ시와一次試用ᄒᆞ심을切望但地方에ᄂᆞᆫ代金引換으로卽速酬應ᄒᆞᆷ

京城府寬勳洞九七番地

永泰昌洋靴店

主任 徐明九 朴鳳植

電話一六三三番

廣告

外科、花柳病科 婦人科、小兒科 專門 診察時間 午前八時 午後八時

注射專門

入院隨意 親切叮嚀診察

食患者無料診察藥價三分의一

市內樂園洞一八九番(塔洞公園)後門醫學料理店跡

海東醫院 院長 皮熙泰

海東醫院製藥部

二大靈藥新發明

遠方患者의게居宅治療에便利케ᄒᆞ기爲ᄒᆞ야玆에

花柳病 最新藥 拔梅丸 新舊梅毒 五十錢 一個月分二圓 潰瘍便毒 二個月分四圓

淋疾 神藥 治冷丸 急慢性淋疾 十日分一圓三十錢 帶下 其他…性冷 二十日分二圓四十錢

二十世紀最新式

流行洋靴專門商

…

紐地方御注文代金引換御便利

京城府寬勳洞一三〇番地

昌興洋靴店

主 李昌熙

振替京城 …

光鎭帽子店

製造所 …

蔘茸補益丸 十日分金三圓 廿日分金五圓五十錢 一月分金八圓
補血益氣 强筋壯骨

沃度加里丸 一月分金三圓 二月分金五圓五十錢 三月分金八圓
梅毒淋疾 咽喉鼻瘡

調經益嗣丹 一月分金四圓
調經胞胎 實驗神方

化痰丸 一月分金三圓
消痰開鬱 淸心降火

醫淋丸 一週日分金一圓五十錢
急慢性淋疾에神効

本社ᄂᆞᆫ開業以來로僉位愛顧惠澤을厚蒙ᄒᆞ와漸次發展되오니感謝ᄒᆞ온바今般에賣藥界有名ᄒᆞᆫ普惠藥房全部를讓受ᄒᆞ와擴張ᄒᆞ고營業을一層上記五種과其他實驗靈藥二十餘種과蔘茸唐草乾材를擇品備置ᄒᆞ고盡誠酬應ᄒᆞ오니倍前愛顧ᄒᆞ심을伏望

蔘茸唐草 乾材貿易 有名賣藥 製造販賣

京城府光化門通二百九番地

漢藥社 並 普惠藥房

主 李常和

長電話二六四一番 振替口座京城四四六五番

歐米情報

日米戰爭은 時日問題
米上院에서 否決된 製艦制限案

米國上院에서 製艦制限案을 討議할새 [illegible] 米國의 [illegible] 危險을 招來하리라 云々하는 者도 잇다 「보라」[illegible]氏는 [illegible]를 利用하야 製艦案의 通過에 努하엿다 [illegible]氏는 日 日米戰爭은 다만 時日의 問題이니 充分한 海軍이 必要하다 [illegible] 日本의 獨逸로서 獲得한 南洋諸島 占領과 日本의 加州問題에 對한 不滿과 [illegible] 佛國으로부터 多數의 飛[illegible] 購入 [illegible] 二時間에 亘하도록 論述하고 諸가 深更에 入하도록 討議한 後에 「로치」[illegible] 日、米、英三國製艦制限에 關한 建議案은 滿場一致로 否決되엿다더라(紐育電)

海軍擴張案과 上院
縮少論者의 見解는 如此하다

米國下院을 通過한 海軍支出豫算에서 約一億弗餘를 增額한 四億九千六百萬弗의 海軍支出豫算案은 遂히 二日夕 上院에 上程되얏는데 海軍縮少論者는 千九百二十二年度의 英露佛獨四箇國의 海軍建造費合計額이 現在의 米國上院海軍豫算額의 半額보다도 減少하다는 旨를 聲明하야 日米間의 海軍建造競爭은 千九百十四年의 英獨間에 生하든 것과 同樣의 結果를 生함에 至하리라고 主張하얏더라(華盛頓電)

英航空隊擴張計畫
埃及에 飛行學校設立乎

英國民[illegible] 下院에서 航空隊豫算의 說明中에 述하야 [illegible] 航空隊建設을 爲하야 諸般의 準備를 講하더니 [illegible] 各地의 大學에 航空術敎授科程을 設置하는 事及 高級飛行의 訓練을 爲하야 埃及에 飛行學校를 設[illegible] 航空軍의 完成에는 今後九箇年을 要하리라 [illegible] 十一箇月間의 進步는 當時 余가 豫想하든 것보다 優大하엿고 航空隊는 今也 一定한 發達의 階級에 進하여 잇슴으로 [illegible] 政策을 變更하야 從來에 成就한 바 事業을 破壞함을 意味함이 아니라 [illegible] 編成은 四月一日로 着手하더니 [illegible] 飛行隊는 三十二箇가 되리라 云々(倫敦電)

英國炭界大恐慌

英國人은 炭業不振의 影響을 最甚히 受하야 由來로 石炭坑問題는 益々 複雜하게 되리라는 傾向이 잇다 取引減少의 結果로 炭坑의 生産에 減退를 致한 結果 坑夫等이 昨年十一月의 「스트라이키」解決에 依하야 得한 一交代에 每日 四十二片의 賃金增加도 上된 件은 消滅되엿다 「론다」의 四萬三千人의 坑夫가 失業하고 又 「사욱·웨일스」의 坑夫가 週末勞働時間의 短縮을 受한 者가 七萬人에 上하엿다더라(倫敦電)

英露通商交涉如何

英露通商協約에 關하야 「크라신」氏는 一日夜 倫敦에 到着하엿더라 [illegible] 英露協約이 調印되는 時에는 直히 多數의 改造自動運搬車를 露國에 供給할 件을 「크라신」氏와 協定하고 此에 調印하엿다더라(倫敦電)

勞農軍大攻擊說

倫敦에 到着한 情報에 依하면 「그리피스크」紙는 報道하야 日 露國勞農政府는 國境諸國에 對하야 大規模의 攻擊을 開始할 것은 可히 掩치 못할 事實이 잇다더라(倫敦電)

印度罷業延期云

印度政府는 印度勞働組合에 對하야 [illegible] 請한 所致로 印度鐵道從業員組合과 印度電信勞働組合은 同盟罷業을 無期延期하기로 하엿다더라(孟買電)

韋氏는 辯護士開業

[illegible] 「윌슨」氏는 正式發表에 依하건대 統領을 隱退한 後에는 辯護士業에 從事하리라는데 事務所는 華盛頓市와 紐育市에 置하리라더라(華盛頓電)

倫敦會議와 獨逸

倫敦會議에 對하야 [illegible] 伯林의 諸新聞紙는 同會議에 [illegible] 獨逸의 一倫敦特派通信員은 倫敦會議의 陳述을 揭하야 日聯合國도 重大한 說[illegible] 今也에 [illegible]로 安住하는 英首相 [illegible] 會議의 開始된 交涉은 오히려 決裂이 되리라 [illegible] 現實에 立脚하야 [illegible] 外相의 [illegible] 第三回의 會議가 [illegible] 「시몬스」氏가 [illegible] 博士의 所論으로써 獨逸의 能力의 限度를 表示한 것이라고 云하얏더라(伯林電)

日英米海軍比較

英國下院에서 海軍省財政官 「아모리」氏는 日英米의 海軍力을 比較하야 日 [illegible] 「카ー손」卿은 [illegible] 大戰의 敎訓에 鑑하야 千九百二十四年에는 英國은 主力艦 一隻、米國은 十八隻、日本은 八隻을 有할 事로 될지며 그리고 千九百二十五年에는 英米의 隻數는 伊太利와 同數가 되나 다만 日本은 十三隻을 有함에 至할 것이다 且 氏는 千九百二十五年부터 千九百二十四年에 至하기까지의 二國의 海軍力에 就하야는 陳述을 避하얏더라(倫敦電)

英名士日英同盟更新觀
贊否의 意見이 居半이 된다

二月廿七日發行의 倫敦 [illegible]紙는 日英同盟更新問題에 關하야 英國知名之士의 意見을 揭載하엿더라

길바트 파카氏 加奈陀出生으로 海外英領委員의 一人이오 且 小說로 有名한 「사아、길바트、파카」氏는 日 日英同盟의 恩德으로 英國은 艦隊를 北海에 集注하게 되엿스며 此에 依하야 英國은 獨逸을 勝한 것이다 然而 加奈陀와 米國이 日本의 移民을 不好하는 事를 吾人은 知하노라 日本이 加州를 奪取함에 [illegible] 此는 所謂 [illegible]之[illegible]이라 할 것이다 何故이냐 하면 日本이 加州를 攻略하여도 何等 所得이 無함이라 日本의 攻略에 對하야 太平洋沿岸을 擁護하는 艦隊를 派遣함은 [illegible] 업슨즉 米國과 加奈陀는 安心하여도 可하다 英國은 太平洋沿岸의 「비이、시이」州를 有한 故로 太平洋沿岸의 制海權의 把握을 米國以外의 國에 許하기를 不欲한다 그리고 日本은 過般의 歐州戰爭中에 其行動으로 英國同盟을 更新할만 [illegible]하엿다

이스라엘 산그윌氏 有名한 小說家인 「이스라엘、산그윌」氏는 日英同盟更新에 反對하는데 其理由는 國際聯盟下에서는 他의 同盟이 箇々의 國民間에 存在치 못할 것이라 함에 在하다

부릿지海軍大將 海軍大將 「사ー、시프리안、브릿지」氏는 日 假令 日英同盟이 更新되더라도 그것은 [illegible] 友인 事를 證明할 것이다 米國、加奈陀、濠洲의 諸邦은 日英同盟에서 何等 妨害될 細事에 障碍를 發見하는 것 [illegible] 英同盟의 目的하는 바는 米國、加奈陀、濠洲의 平和와 利益을 確保함에 在한 것이며 또 그것은 從來부터 確保하여 온 것이엿다

하멀톤將軍 사아、이안、하멀톤將軍은 日 同問題에 注意를 加하는 人으로 若予의 指導를 欲할진대 予는 其人에게 第一軍參謀將校의 「스크랍프、북크」를 讀케 하리라 然則 其人은 日本人의 肖像畫에 接하야 悠々한 境遇가 안 乎하는 줄을 [illegible] 其用意를 見하리라 將校가 此等日本人을 寫한 「스켓치」를 發見하리라 此를 見한 其人은 스스로 決心하여도 好하다

濟生院孤兒部擴張實施

總督府에서는 新年度부터 濟生院孤兒部의 擴張을 實行하기로 決定하얏다는데 內容은 從來 同院의 孤兒部는 普通學校程度로 하고 其年限은 四年、收容兒數는 百七十五名이던 것을 新年度부터는 豫算의 許하는 限 二百名으로 하고 三年의 修業年限을 經過한 後에는 [illegible] 年限을 延長하는 同時에 職員의 數名을 增設할 터인데 이는 四月新學期부터 實施할 터이라더라

盲啞部新擴張

總督府에서는 今春 社會事業의 一로 京城의 濟世院에 盲啞部를 設置하고 朝鮮內의 盲啞者를 募集하야 技能을 授하야 自活의 途를 講하는 事는 一般의 知悉하는 바이어니와 于今까지 其主旨를 充分히 [illegible] 못한 所以는 [illegible] 盲者에게는 按摩를 授하고 [illegible] 從來의 方針을 更히 變更하야 徹底的으로 是等盲啞者의 救濟를 行하려고 目下 各方面으로 調査硏究中인데 其內容은 于先 新年度에 入하야 곳 各道에 通牒하야 全鮮盲啞者數 調査를 行하고 現在의 濟世院盲啞部의 官費生을 增募하는 一方으로 鮮內 一三의 都邑에 學校組織의 盲啞者收容所를 建設할 方針이라더라

本店銀行資金難說에 對하야
鮮銀營業局者談

京城市內各銀行의 手中에 在한 金狀態에 就하야 朝鮮銀行營業當局者는 語하되 最近 京城日本人側銀行支店은 時在가 豐足하나 本店銀行은 [illegible] 資金의 不足에 困難한 中이라는 說이 잇다 日本銀行支店의 [illegible] 豐富한 事는 事實이니 現在 其拘擁하는 預金의 放資를 日本에 求하는 것도 一二行이 잇다 然而 京城의 朝鮮人側本店銀行이 資金難에 困하다고 云치 못할 것이나 越年後 舊正後로는 預金이 반다시 [illegible]하다고 云치 못할 것[illegible]

仁取手數料改正

仁川米豆取引所에서는 從來 四月一日부터 取引所稅와 賦課稅를 受하게 되미 其結果 仲買人은 取引稅를 負擔하게 됨에 對하야 當然히 現今의 手數料의 引上을 策하야 目下 講究中인즉 不久에 其調査를 [illegible] 하야 許可를 申請할 [illegible] 手數料는 市勢의 上騰에 準하야 累進率을 課하게 되지 [illegible] 石六圓의 平均率이 [illegible] 內地의 取引所와 同樣으로 東京、大阪의 米穀取引所 手數料率을 準據할지오 又 該手數料의 取引所 對 仲買人의 分配比例도 現在에는 折半式이 되지마는 改正後는 若干의 引上을 見할 터이라 [illegible] 分之二를 仲買人에게、又 三分之一을 取引所의 收入으로 하자는 [illegible] 結局 取引所의 收入은 大括 現在와 同樣이 될 듯 하다더라

全鮮電話架設數
岡本遞信局工務課長談

全鮮各地의 電話는 頗히 不足함으로 電話의 新請이 接踵하야 架設豫定數를 超過하되 遞信局當局에서는 [illegible] 一年々々 增設하지마는 尙且 不足되는 十年度에 [illegible] 架設豫定數 八百四十個와 普通電話架設豫定數 [illegible] 自 個 기되는데 [illegible] 其架設은 豫定數에 [illegible] 製造工場이 [illegible] 窮迫되야 十年度의 架設도 [illegible] 十年度의 殘數電話의 架設도 年度[illegible]하엿다

大田水力電氣競願問題

大田水力電氣問題는 大正七年秋 結局 東拓에게 許可될 듯 [illegible]

米大統領略歷
新聞記者出身이다

米國第廿九代大統領 「하딩」氏는 三月四日로써 大統領에 就任하얏는 바 歷代의 大統領과 特異한 바는 同氏가 新聞記者出身인 事라 [illegible] 建國以來 大統領 華盛頓으로부터 二十八代되는 事로 [illegible]氏까지 [illegible] 農業이 九人、法律家가 一人、政治家가 一人、鐵製造業者가 一人、[illegible] 商人이 三人、警部가 一人、革商이 一人、僧侶가 三人、辯護士가 二人、新聞記者가 一人 [illegible] 되얏다 그리하야 [illegible] 大學을 卒業하고 鄕村新聞의 外勤記者가 되얏다 其後 八百八十四年에 「마리온、스타」新聞이 賣却케 됨으로 友人 二人과 相議하고 此를 買收하야 [illegible] 日의 外勤記者가 一躍하야 新聞의 經營者가 되얏다 [illegible] 八十九年에 結婚한 夫人으로 하야금 販賣部長을 兼케 하고 夫婦가 함께 活動한 結果 [illegible] 新聞으로 [illegible]되얏다 [illegible] 千九百年에 州上院議員이 되고 [illegible] 一千九百十五年에 合衆國上院議員이 되고 [illegible]

[illegible] 大統領就任式에 [illegible] 經費를 [illegible] 大規模의 夜會 [illegible] 兵士의 華麗한 整列 [illegible] 氏는 [illegible]

陸軍記念과 祝典

朝鮮軍司令部에서는 來三月十日 陸軍記念日임으로 京城在住의 主要官民 約千二百名을 招待하야 盛大한 祝典을 擧行할 터인데 當日은 [illegible] 龍山練兵場에서 各部隊의 演習及 餘興等을 行할 터이며 [illegible] 大宴會를 開할 後에 [illegible] 模擬店을 開設하고 [illegible] 多數할 터이라더라

產鐵의 復活難
未久에 解散認可가 될 듯

兼二浦製鐵株式會社 株主總會에서 解散을 決議하얏는데 目下 認可를 申請中인 朝鮮[illegible] 株式會社는 其他 諸方面에서 非解散論者가 續出함으로 因하야 當局은 이를 保留하고 解散論과 非解散論者의 論旨에 對하야 考究하는 中이던바 目下의 狀況에 對하야 當局者는 如左히 語하더라 [illegible] 株主總會에서 [illegible] 一朝決議한 以上은 [illegible] 株主의 承諾을 得하기는 絶對로 不可能 [illegible] 引受 [illegible] 三十萬株 [illegible] 十萬株 [illegible] 持株 [illegible] 到底히 不能할 뿐더러 [illegible] 遺憾이다 [illegible] 水野政務總監 [illegible] 解散을 [illegible] 云々하더라

滿洲작蠶絲와 呑吐槪況

世界唯一의 作蠶國은 支那이며 支那作蠶의 七割은 滿洲에서 生產하는 바 然而 其產地는 遼東半島를 主로 하야 第一 滿鐵本線으로부터 安奉線의 西方에 至하는 [illegible] 地로서 最南은 [illegible] 海城蓋平은 [illegible] 產地이라

南은安東縣

安奉線은 到處에 作蠶을 產出하는 바 [illegible] 安東縣附近에 集散하는 作蠶絲는 [illegible] 寬甸縣下로 寬甸을 中心으로 하야 [illegible]

奉天附近

奉天附近에는 [illegible] 開原은 作蠶地로 [illegible] 散地로서 [illegible]

一個年幾何

[illegible] 作蠶繭은 [illegible] 其產出은 [illegible] 滿洲의 作蠶은 [illegible] 日本에 [illegible] 統計는 [illegible]

作蠶繭一籠

[illegible] 萬粒으로 [illegible] 大小에 依하야 [illegible] 今年에 [illegible] 六千粒乃至四萬粒이 [illegible] 八十八圓 [illegible]

安東縣市場

安東縣의 作蠶絲는 [illegible] 一千五百萬圓乃至二千萬圓以上에 達하는 [illegible]

工場百廿五戶

安東縣에서 製絲에 從事하는 工場은 [illegible] 大部分이 安東縣으로 移轉 [illegible]

商況

仁川穀物 (雜組)

正米	一三十錢高
大豆	保合

標準時勢

公淳三等玄米	未定
地搗玄米	
仕來粉	
神力粉	
白川大豆	
龍山大豆	
長湍大豆	
海州小麥	

京城穀物 (三月六日調)

延取引	
玄米二月末渡	
四月中渡	
地搗玄米	
正米	二十錢安
白米小賣相場 市中一般	二十四錢
公設市場	二十三錢
大豆	保合
滿洲粟	保合
雜穀	保合

京城標準時勢

京畿三等玄米	一九、〇〇
地搗玄米	一八、〇〇
同白米並	一七、二〇
定等白米	二三、七〇
韓白米	一九、五〇
朝力粉	……
仕來粉	四、六〇
龍山大豆	一一、〇〇
東豆川大豆	一〇、四〇
鐵原大豆	……
長湍大豆	……
金郊大豆	一〇、二〇
滿洲粟上	六、三〇
同並	六、〇〇
朝鮮小豆	一三、〇〇
牛豆	九、五〇
綠豆	一二、三〇
荏子	六、五〇
胡麻	二二、〇〇
小麥	二三、五〇
大麥	四、五〇

◎釜山電報

正米 四月末	二〇、二〇 五六十錢高

◎群山電報

正米	一九、四〇
延取引 三月十日	一九、四五
三月廿五日	一九、四三
四月十日	一九、五〇
四月廿五日	不成立

●鮮銀券	(四日現在左如)
發行高	一〇〇、七九五、三五一
正貨準備	五〇、九三九、七七〇
發行餘力	
●日銀帳尻	(三日現在左如)
發行高	一〇七八六〇二一
正貨準備	一二〇〇〇〇
保外發行	九八二三七五
貸出高	
●日本金利	(四日現在左如)

株式

東京現株 五日後場	東京	大阪
一一厘 無條件	八、〇	五、〇
當日物	七、〇	八、〇
六十日物	一三、〇	
普通割引	一四、〇	一一、〇
	一三三、〇〇	
	四九、〇〇	

京城現株市況 (五日後場寄付)

	今週中	來週中
京取	三一、六〇	三一、二〇
殖銀新	一六、二〇	
東拓新	一八、八〇	
東亞新	二四、八〇	
仁取	一五九、五〇	
鮮銀	一三三、〇〇	
鮮銀新	四五、五〇	
漢銀	五四、五〇	
商銀	九、五〇	
商銀新	……	
漢銀	二二、〇〇	
漢銀新	三七、五〇	
韓銀	……	
東拓	……	
鮮土	五九、〇〇	
朝紡	一〇、七〇	
滿毛	一九、〇〇	
京電	……	一〇、七〇
京電新	……	一七、五〇
電興	……	
東亞	……	
朝煙	……	五八、〇〇
朝紙	……	
朝郵	……	
朝鑛	……	
中鐵	……	
滿鑛	……	
朝鐵	……	

大阪株式 (五日後場)

名稱	寄	引
大株	一三二、五〇	……
同新	五五、一〇	……
郵船	……	……
同新	……	……
商船	……	……
同新	……	……
鐘紡	……	……
同新	……	……
東紡	……	……
東糖	……	……
上取	……	……
日紡		九八、五〇
滿糖		……
朝紡		一八、〇〇
帝毛		一五、八〇
東取		四九、〇〇
同新		一〇〇、五〇
東株		一三五、五〇
同新		一六、五〇
滿鐵		五四、〇〇
同新		二六、五〇
日糖		一八、五〇
同新		一八、〇〇
東拓		五九、〇

期米

大阪期米 (五日後場)

(一)	一四、四七
(二)	一四、五五
(三)	一四、三九
(四)	一四、四〇
(五)	一四、四四
(六)	一四、四四
(七)	一四、四〇
(八)	一四、三九
(九)	一四、四一
(十)	一四、三五
中	一四、四三

東京期米 (五日後場)

(一)	一四、九四
(二)	一四、九八
(三)	……
(四)	……
(五)	……

仁川期米 (仁川電話) 五日後場

(一)	一四、八一

物價

	寄	止	公定
一節公定			一九、四〇
二節公定			一九、四八
三節公定			一九、五三
四節公定			一九、四一
五節公定			一九、四九
六節公定			……

◎綿布 (二十八日調)

◆洋木一에三磅	一疋	二二、五〇
同十二磅	同	一〇、〇〇
同內供	同	二二、〇〇
◆玉洋木十八字	同	一九、〇〇
同大家發財	同	一九、〇〇
同日本物	同	一一、〇〇
◆廣木三에	同	一五、〇五
同南大門	同	一四、〇〇
同內供	同	二二、〇〇
◆南平木	同	二八、〇〇
◆廣木	同	三〇、〇〇
◆求絹布	同	二六、〇〇
◆居昌布	同	一六、五〇
◆北布	上同	七〇、〇〇
同	中同	五〇、〇〇
同	下同	三六、〇〇
◆毛本緞	上一尺	二、五〇
同	中同	二、三〇
◆英綃	一疋	七、五〇
◆法緞	上同	一、五〇
同	中同	一、四〇
同	下同	一、三〇
◆官紗	上同	一、〇〇
同	中同	九〇
同	下同	八〇
◆西洋緞	上同	三、四〇
同	中同	三、二〇
◆鐵原紬	上一疋	一五、〇〇
◆永一直	上同	三、〇〇
同	下同	二、五〇
◆淸水三八	上同	九、五〇
同	下同	八、五〇
同雙加重	上同	七、七〇
同	下同	七、二〇
同單加重	上同	五、五〇

◎紙物

朝鮮紙	
板紙大角壯百枚	自百四十圓
至百六十圓	
中角壯百枚	自七十五圓至百十圓
小別角壯百枚	自四十五圓至六十圓
細角壯百枚	三十五圓至四十圓
東大壯百枚	自十五圓至十七圓
白紙新廣大壯一塊	自三百二十圓
至三百五十圓	
陜窓紙一塊	自一百圓至一百六十圓
書厚紙一塊	自九十圓至百二十圓
三防紙一塊	自七十圓至百二十圓
新廣紙一塊	自七十圓至百圓
丹陽帖一塊	自七十圓至百圓

日本紙 品名 壹丸市價

優美紙柳製	上	一七〇
同	中	一五〇
同	下	一四〇
生漉	上	一七〇
同	中	一五〇
同	下	一三〇
機械紙柳製	上	一二〇
同	中	一一〇
同	下	一〇〇
半紙	上	九五
同	中	八〇
同	下	五〇
半切紙	上	四五
同	中	四〇
同	下	三五
美濃紙	上	三〇
同	中	二五
同	下	二〇
三月十日	二十一圓八十八錢	同七十六錢
押紙	一斤	
半紙 上	同	
新聞紙 上中下	同	一〇
印刷紙	壹連	

借力丸

壯筋骨 補氣血 强壯劑中 大王先祖傳來秘傳妙方 但服藥中危險確無

大一劑 二十六圓 小一劑 十二圓 請求時 四十錢郵切手送 先送喜

京城府壽松洞四十八番地 借力丸本舖 李光燦

診療開始

診察時間 自上午九時 至下午九時

京城府樂園洞一四一

外科 皮膚科 大東醫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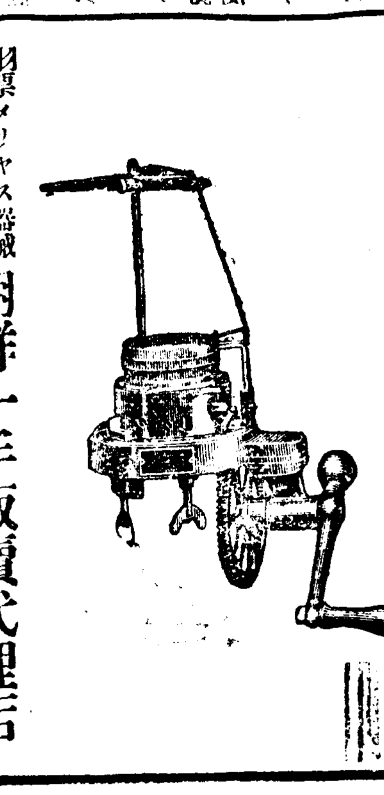
千葉醫學士 李潤載

電話二七五六番

有利한 新事業案內

經濟復活의 此際에 最히 有益有望하고 需用이 多大한 洋襪製造業을 資本家及求職者各位께 案內함 本來 僅少한 資金으로도 經營키 可得함과 利益의 多大함은 本事業의 特色인바 今般 製品의 價格은 依然히 大變動이 無하고 原料絲는 一年前의 半額以下로 慘落함과 相俟하야 又一層의 大利益을 收得할지니 此好期를 勿失하고 率先 問議하시오

無代進呈 二錢切手添付請求하시면 詳細說明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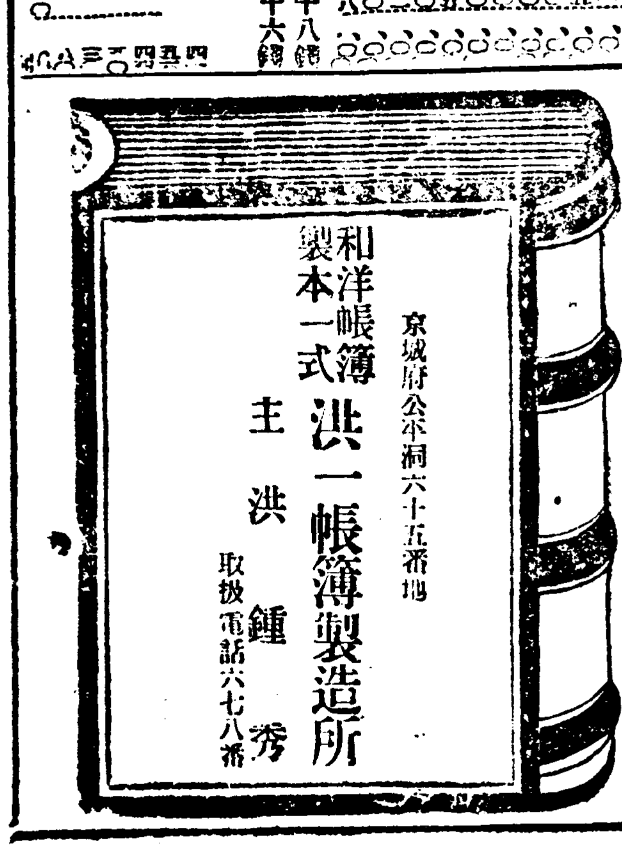
洋襪メリヤス器械 洋襪器械 朝鮮一手販賣代理店

京城南大門通一丁目銅峴四街里

諸雜貨 直輸卸商 瀨戶勝兵衛商店

電話 七一七番 振替貯金口座京城二一四〇一番

內外洋襪機械製造販賣工場 器械製作及修繕專門 機械部主任 金錫龍



大統領의榮位를내여노은위일손前大統領은오날부터는民間에나서서是非曲直을가리워쥬는辯護士가되엿다홈니다!

古今東西

未曾有한 五億萬圓의 大博覽會

미국은건국호지일빅오십년의넘을긔념호기위호야세계대박람회를

오는일쳔구빅이십륙년즉뎨일빅오십년은미국국조『國祖』와싱톤씨의건국긔념일빅오십년에상당홈으로미국사람들은이번긔회를타셔젼세계를놀내일만훈큰규모로써여러가지로궁리안즁이더니비로쇼비부『費府』에다가고금에미증유훈대박람회『大博覽會』를마최호기로결뎡호고이사업에디호야큰경험이잇는슈십명의유력자가쥰비위원이되여가지고이제로부터오기년동안을두고셜비를홀터이라는디그예산총익은젹어도오억만원『五億萬圓』이상에달홀터인긔념사업을할터인바공사비가약오쳔만원의원형극장『圓形劇場』을건셜호고영구훈건축물로동박람회를건쵸홀터인바이번계획으로말호면이왕가흔셰계대박람회임으로구쥬디젼란당시곳일쳔구빅십오년의상항디박람회『桑港大博覽會』의경비와규모를타파하야디마벽후의쳐음가는신긔록이될만훈큰박람회가출현될것이라더라

希臘皇帝를 咬殺훈 疑問의 猿

황데를암살하라고원숭이를리용훈듯원인은됴사중

히랍『希臘』페뢰콘스탄티노의하쟈알렉산더는파갓치투테〃론이라[illegible]곳에서불을훈쳐월을보니고잇기도호나그러훈가운디도비관파시중이이론파다를것을쳬게여한임군〃밋쳐지흠만큼사치훈싱활을호고잇슴자가우슴삼년이나되얏[illegible]그동안에[illegible]

의문으로알리던것이다　누구던지그큰돈이어[illegible]셔낫는가는문제는황체의리그커나와드어는미인군호부마노니임군의디위를버리고리로셔연애를위호야[illegible]구정이니도국인이나혈구정[illegible]단이더니하로는손수깃는성이슁이의게물엿셔필경파테리에서긱사를[illegible]엿다[illegible]그러훈의사가엄중이금사[illegible]

원숭이의 견우가밋치는황뎨를암살호고[illegible]훈것이분명훈것이라는설파가밋기는아라스나이것이암살이라면그사람이황뎨를암사훈홈든바[illegible]엇더훈사람이[illegible]고[illegible]오직또누가그[illegible]엇던훈일에알수는업시[illegible]

의문에다　엇더훈게추측

고스사라듸동령이될야고호는부에비세로스의사람이한것이라고호는[illegible]로사람도잇기는호지만은여러이것도오린동안의々문이다

은그사건이가장[illegible]이상한일이라고호든것은또그즁에도더이상훈것은오미스의큰지산가의과부리이쓰라는부인이[illegible]평어리를가

日本各地에서 職業的野球團

일본각디에지부를두고 학싱일빅명을모집한다

일본에셔도차〃야구열(野球熱)이성풍호야짐에따러미국(米國)과갓치직업뎍야구단(職業的野球團)을조직호기로뎡뎍훈일본디야구단양성소(日本大野球團養成所)라호는것을조도부터만히밧엇다호는디요사이에주식회사로조직호기로되엿는디그회사를창립케훈자는원구회군쇼장(原口海軍少將)동수십인발긔인발셔각방면에잇는각부호의찬

長白山中에엿는 長江好逃走乎

장빅산즁에웅거훈지나마적장강호는도망호여

함경남도함흥(咸興)으로브터출뎡국에셔긔사신문을동호얏든부디(部隊)는혜산진부근(惠山鎭)에모야잇는디마젹괴슈장강호(長江好)는일본군디가출동호는것을알고지나방면(支那方面)으로갓스나지나군디에게격퇴되야조션니디(朝鮮內地)에드러왓다는보고를접한〇〇쇼장은지나군삽일밤에〇〇로급힝호기를지휘호고오쳔칠시경헤산진을츌발호야포틱산방면(胞胎山方面)으로출동호얏다더라

지고루치에큰예은일이잇셧는티어느해인지이리어쓰와임금의오돗입이셔로손을잇글고공원에모산보호며연극장에모오는것을보게되엿다어려할동안에셔계의뎌씨는수리박휘를돗롭고모라부에네셔도스가정치에실피호고스탄친의폐쳐의계희망의롬빗치다시도라왓다

九新聞의 公判開廷

검사의긔사정지를위반호얏다는공판

시사(時事)동경조일(東京朝日)만조(萬朝)이륙(二六)보지(報知)동경일々(東京日日)독미(讀賣)동경미일(東京每日)의아홉신문은신문지법위반(新聞之法違反)으로동경구지판쇼(東京區裁判所)에긔쇼되야일간공판을기뎡한다는디그불닉용은본년이월십륙일동경뎨거장호텔두에셔민원식(閔元植)씨를살해훈일에관한긔사에긔지되엿든바검사의긔사정지위반(記事停止違反)이잇셧는고로

上海臨時政府 議政院會議

지나상히에잇는조션림시정부(朝鮮臨時政府)데팔회림시의정원(臨時議政院)은림시대통령리승만(臨時大統領李承晩)의의면만바당으로이십팔일부터기회호기를발표호얏다더라

爆發藥의 密買犯人

公判에附홈

경상남도부산부목지도(釜山府牧之島)일쳔오빅이십오번디됴규(趙漢奎四二)와밋동리일쳔오빅십삼번디김룡리(金龍伊二三)동량명은관련하야기억시디경구년십월일경부산부빅봉리뎡정목동창려관홍지숙(洪在淑)의집에셔부동(東彰旅館)[illegible]윤니동(雲泥洞)칠십칠번디윤두환(尹斗煥)으로부터(뇌이나)마이트사욱기를디금이십원에미수한사실이발각되야경성디방법원검사국에셔취조를맛치고동형사부공판에붓치다더라

누반에투표훈결과는콘스탄친왕위를다시도라자고결정이되여서바우로는당연훈황태자가되여부자셔로손을맛잡고군한나아시아스로홀라고오게노스에오게되엿다아케노스식가운되로헌팔로써운게흔마차를타고감탄의무슴아으로지날동안에황리자비로써마차에갓치탄사롬은파면구인가못지안어호여도황금을가지고온리이쓰부인이다회합인던온열광뎍환심으로한기지황금너왕만세를불넛다더라

우에는발긔인등잇씨무련회려양(武川團人團)이인황디말호되야셔로야구단이차々고조되아서긔업뎍야구단이필요호기습인명호고여자혀양성소를설립호얏는다각방면에서다디한한영을바다셔관々히엄빅명의학싱을모집홀셩각인디그호게되는시에는미국(米國)셔상당훈교사열명을고빙호야구습에데훈교수를밧게호려어집닙학셩의뎡도는중학교졸업셩은도동동의학식이잇는자로호고신장은오쳑삼촌이상인사로호고쳬학삽십키원간은실비를밧치게호며그후부터한기년간은디비싱도로호야연습호게호고졸업후는후에는미국으로건너가서각디로도라다니면서흥정흥호려이며운동장은닐고[illegible]

競馬大會開催

二月廿一日兩日間

부산경마구락부(釜山競馬俱樂部)에셔는오는삼월이십일일과이십이일량일간부산진미립(釜山鎭埋立地)에셔경마대회(競馬大會)를개최호이래본회에모디이회경마대회(第二回競馬大會)를긔최호라고각일마가사이에협의즁이라는디시일은(和宅繁一)파밋추산봉일(秋峰一)량씨가발괴호야오일에부산경찰셔에허가원을데출호얏는디긔최일시는오후이십일파밋이십일일량일도호고디디뎌으로거횡방침이라는바부산쇼가업습으로적당훈장쇼를선뎡호야가쥬쇼가업슴으로적당훈장소로부산진미립디로장쇼를청호얏고기최비는이월이십일부터오빅여원을상훈오빅여원을[illegible]

判決言渡

軍資金募集員

는來十一日

경긔도파쥬군(坡州郡)일명(日暮洙)와밋홍지근(洪在根)외이명은양주군(楊州郡)과쳐에셔조선독립군자금모집한바일이발각되야경성디방법원검사국에셔공판에부쳣눈다이디로언도호얏다더라

四人强盜

원주군에셔잡힌강도도공판중이요

강원도원주군디정면군현리(軍峴里)일빅오십삼번디표광익(表光翊)(四三)파밋동군부(盧東洙)(二十三)동리일빅오십삼번디표(李某)(三〇)동리일빅오십번디최명번디로(盧秉泰)(三〇)동사명은공모호고디정구년십일월슈일경동도동군동면에셔착화상호오회명(胡希泳)이가잠회를가지고자긔동에물리에와목호박역을이라더라

中央靑年會音樂會

중앙쳥년회관에셔음악회를개최혼다

오는삼월셔부터중앙쳥년회관에셔음악회를개최혼다는디이번음악회에는셔양부인(歸國)씨가독창을호고미잇는음악도잇다는디입장료는업다더라

李寶玉의拘留

돈도못먹고々싱만호야

리보옥(李寶玉)이라는녀자는지나간사월오후십이시경에오전오시경이되여셔사소로에셔자거집에셔지디가중도뎡된바되야모든힝원과무사히된소문에게발각

同情金寄附

金德允氏에게

고양군한지면왕십리김덕윤(金德允)씨의집이화지가잇셔젼부불에뵈안가난호고쇼이야그경상이참혹혼바와갓거니와이에단호계쇼유의가옥외지무료로빌녀쥬엇고또동리김원삼(金元三)장셩구(張星九)량씨는이에의연금모집을발괴호야의연금을긔부훈씨명파아리와갓더라

一金參拾圓	高陽郡漢芝面上往十里七百五十七番地 陸産物委託販賣及各種毛皮貿易商 主	林盛茂
一金參圓		張星九
一金參圓		車리錫
一金拾圓		吳明燮
一金拾圓	廣昌牛皮貿易商	[illegible]
一金五圓		梁柱連
一金拾圓		李圭俊
一金貳圓		梁福지
一金五圓		蔡昌植
一金拾圓		裵聖寬
一金四圓		李永鎭
一金貳圓		金俊煥
一金壹圓		林晶基

賣渡橫領

玄米三十六石

부산부복동(福北洞)일빅팔십번디리규상李奎相(三八)은디정구년오월경부터부산부남동일빅오십삼번디류근수(柳根洙)가현미삼빅십삼석에대한긔운미삼십륙석을양도훈사실이발각되야경성디방법원형사부에서공판을맛치고오는십일에판결언도한다더라

海岸에서 投身未遂

무슨일인지남편이밤각

지작일오젼에서시경부산디청공원(大正公園)으로바다가에서무슨일이남편이밤각되여경찰서로부근에서쳐량훈우름소리가나거늘곳그무근에롱힝호든사룸이도고곳가셔보즉엇더훈녀자가물에

仁川孤兒院에 仁川有志義捐

一貳圓	崔應元
一金貳圓	李寅奭
一金參圓	金元三
一金拾圓	朴承기
一金參圓	李晃儀
一金貳圓	李泰淳
一金五圓	高鳳軒
一金貳圓	溫俊山

인쳔부〃뎡(寺町)에잇는고오원(孤兒院)에지금고아의수용된것이사십여명이나원리동원의저경이곤난호야업슴으로허유지호야갈방침이이업슴으로그불상한어린것들을또다시길거리에니여놋는경우를면치못호게된고로그간인쳔부내각유지군에셔는여러니가도뎡호지안으면아니되겟다고오원을아모조록유지호도록하야인쳔리(朴昌漢)명치국(丁致國)쥬명긔(朱明基)장석우(張錫佑)림원지(林元芝)씨는크게분발호야각유지의협셩디로집호결과좌와갓흔의연이잇셧는디그씨명은유지측의의연을모집호결과좌와갓흔의연이잇셧는디그씨명은

一金五十圓也	丁致國氏
一金一百圓也	朱明瑞氏
一金五十圓也	具昌祖氏
一金五十圓也	張錫佑氏
一金五十圓也	崔應三氏
一金五十圓也	沈能德氏
一金三十圓也	朱命基氏
一金三十圓也	鄭順澤氏
一金三十圓也	朴昌漢氏
一金三十圓也	유君星氏
一金三十圓也	朴仁燮氏
一金五圓也	李駿九氏
一金三圓也	李宰九氏
一金二十圓也	朴元翌氏
一金十五圓也	金相俊氏
一金十圓也	韓禹根氏
一金一圓也	金澤弘氏
一金五圓也	徐相彬氏
一金二圓也	崔岐鉉氏
一金十圓也	李善卿氏
一金五圓也	金基淵氏
一金十圓也	姜震錫氏
一金十圓也	姜雲錫氏
一金一圓也	李鶴秀氏
一金一圓也	二林商會氏
一金一圓也	李亨來氏
一金五圓也	李珪옥氏
一金二圓也	羅元基氏
一金一百圓也	平山松太郞氏
一金十圓也	金善奎氏
一金二十三圓也	朴濃瑞氏
一金五十圓也	小林藤右門氏
一金三圓也	金有根氏

一金三円也	申[illegible]氏
一金五圓也	崔[illegible]文氏
一金五圓也	李[illegible]奎氏
一金十八圓也	李求賢氏
一金五圓也	崔永[illegible]氏
一金九圓也	鄭永模氏
一金二圓也	南千玉氏
一金五圓也	權景雲氏
一金十圓也	李圖興氏
一金一圓也	安定基氏
一金一圓也	高仲泰氏
一金五圓也	鄭興澤氏
一金五圓也	金용泰氏
一金二圓也	朴承裕氏
一金一圓也	尹宇燮氏
一金九圓也	金斗基氏
一金五圓也	文松衡氏
一金十圓也	李永順氏
一金十圓也	李光春氏
一金十圓也	李東皓氏
一金一圓也	張世銓氏
一金四圓也	孫仁寬氏
一金一圓也	李商順氏
一金二圓也	車仁成氏
	景公實氏

이외에기부훈신여러분은명일계속호야기저홈

東西南北

◀우리경성부당국자들은요서무엇을호느지경셩부조션사람사는동네에는도로(道路)상에엇든쓰레기도안치워갈원안이라그보다더한것은이허길에다가뒤변(大便)을엿기저기눈데가잇는데도은히길에다가뒤변을갈싱각들는안이훈니경성으로말호면자는싱각인지데일가는도회디오조션셔는만은디다른디방보다외국인도만은디다른디방보다도횡청상에차리훈는것은경성부당국자의쥬의훈기를바지오모조록

람(一讀者)△종로통사뎡목(鍾路通四丁目)엇더한건지약국에셔는수일젼에엇더한손님이이쳔디보향(十全大補湯)을지어왓다는데그약봉지를열고본즉당귀(當歸)에셔벌비가우글々々호게기여셔나오는것을보고질식을하야다니그러호약은이후부터팔지안이호난것이엇더훈지(勸告生)△근일좀보니공설시장청부각쳐에잇는것은공설시장(公設市場)이라는것은반부민에게다쇼간편의를줄불덕으로설입훈것인디거낭은도리혀훈단으로싱각되는면편한점이만이잇셔요왜다른시장보다물가를그와갓치만니밧는지(經驗生)△

靑春紅顔

羅相淑孃의 哀史 (18)

아춤이슬에장차뛰어라는한송이월계화는

악마가흔경박쇼년은규중처녀를동락호야그정됴를유린훈다

잔인한비바람에이처룸다락화가되고말앗다

이러처럼호야섯달훈달다되는사람파마조안져서어약월초이일에일으러진상렵이는이룰혼돈즁에죡하되는라상신년의인사도할겸호야상숙의현이란사람이말호가를『우지며지니가고신유년신히를마진청넘ᄂ누이가근년에는발셔이집을차자와돈바상렵이는어ᄉ체가되엿스니쇼엄이가흡인디ᄭ슐을써고와돈지상슉의끌가합훈곳을쳐되호야시집안방에안졋다가취홈김에두을보니야지요?아모이려더력호더누어셔잠이들어잇는줄맛집에수지(秀才)가잇도다파연그즙상슉이와집으로말ᄒ면혼인을ᄒ드린

혼항렬되는

상현(相賢)이라는사룸이세빅을온고 라상현의도 망발은되지안을만훈집안이 으ᄂ도몹쓸짓가반갑게인사를ᄒ야 안 장리에서사회상에나스드라도한 방으로인도ᄒ야셔로인사를맛 사룸된자격을넉々히보젼ᄒ수 친후에상숙이는젼여밥을지 나와…오모리보오ᄃ슈상ᄒ지 으라고부억에나오가셔 잇는사람인즉오지머님되셔도 쇠야야종차알면알지ㅣ이리죵 고그모친되는이는그족한 시유의ᄒ시거든한번보시드라 고ᄯ라나오즉김가는『나의며 로도흘노흠니다』ᄒ면셔이런 은나오라ᄒ니나ᄋ갑시다』 초심에자긔일가집이라ᄒ고차젹

신랑지목도

변々호야 못은나붓보오서용셔호고러 자를한할것이업슨즉모든잘 쪽호되는라상현이다려『술먹은 고로라상현에는도김가의 힝동이긔괴호낫각되관결ᄒ형 이무엇인지명쇡은모르겟소만 고로라상현이ᄂ흔자기 ᄒ는경찰관ᄒ회동갓치도보이ᄂ 죄인을잡어가지고닥달ᄒ듯이 잔말이나는고ᄒ면셔잔말이무삼 『나오라편나오겟지만무삼범 ᄂ붑ᄉ스런는방울을굴니면셔 오』ᄒ며디답ᄒ즉김상렬이 누구다려나오라고ᄒ시

이것이무삼봉변인가

리약이도ᄒ며뎌리약이도ᄒᄂ와다가 중ᄒ두려누어잠을자든상렬이도 별안간에별덕이러나면셔안방 미다지를ᄒ쳐열어밀치면서마 루로나와간다가김상렬이는 다시방으로들어오더니라상현 이란사람을붓드ᄒ야『여보이량반 ㅣ로형좀봅시다』ᄒ엿다라상현 이는김상렬이의얼골을치어다보 면서『여보로형은누구신되무슨 말을ᄒ라면지훔것이지 스니엇지ᄒ야라는닌힝동을보려고 여보오마싱각건ᄃ당신의힝 동이무삼관리인듯ᄒ되ᄃ관 결관리이면니일가집에세빈 온것에무삼잘못이잇단말이 오무삼일로놈의々복을잡고 이모양을ᄒ오』ᄒ며마당아래 로나려갓다별안간에이런광경 을보ᄂ상숙의모친이며 야오작ᄒ얏스리요상슉의모ᄃ『母女』 야이런실례의횡동이어ᄃ잇스 며ᄯ돈가만히힝동을보니가무 는지금에일도업ᄂ 가ᄃ들어더미ᄒ여김상렬을ᄃ 야『이것이무삼히거이란말이 다무삼정찰관의횡동갓치ᄒ니 ᄒ판법에어ᄃ잇ᄂ냐』고ᄒ면서 넘어도긔가막키여『여보아 라ᄋ그사람으로말ᄒ면나의 족으로쪽ᄒ되ᄂ사람이며ᄯᄂ 지금틱평동(太平通)에셔어린 오회들의흔장(訓丈)노릇을ᄒ ᄂ사룸인ᄃ그사룸이무삼죄가 잇다고그와갓흔말을ᄒ며ᄯ 로그ᄃ의횡동이아모리보오도

상숙의모녀

는말ᄉ되『그런놈은불가불유 셔ᄒ할수업ᄂ자이라그놈이ᄂ 자ᄂ줄알고말ᄒ부로ᄒ엿지 마ᄂ그놈이가만히본즉상힝 가졍부와무산딕락ᄒ엿ᄂ놈이 ᄂ낫가그런놈은불가불감옥으 로보ᄂ지안을수업ᄂ일이라』 고ᄒ면셔얼토당트ᄋᄂ한말노 ᄋ며블량을대지라

말훈마디만

장ᄉ…노오날밤에ᄎ집ᄋ란ᄉ에셔 ᄋᄅ…ᄋ면그자 잡을자게되얏스니오 쌀쌀혼짓으로니롤집ᄋ가ᄂ 잡어가ᄂᄀ줄도알으시오나도 음ᄋ사어가고우리갓흔사롬을ᄯ ᄉ을치면셔그야관리만사롬 량비의회동을일ᄒ 가칭형사ᄒ고돌아다니는 …ᄒ그디의횡동이아모리보오도

나와큰원수

닐오리시니가 두고보시오오날밤에그놈이 니가집구석에잇나보시구려니가 다른권리는업지만은그만훈권 리는가지고잇는사룸이오』ᄒ면 서호긔만면ᄒ야가지고상현 이란사룸은무합ᄒ야잡어너흘 ᄯ々이흠으로그말을듯고상숙이 자는힝동을보며안졋든상숙이 ᄂ뒤데오륙년동안을두고니 리ᄉ사룸을위협ᄒ며핍약한 동으로모욕을ᄒ야오든것만 분ᄒ고결통훈싱각이그만극 도에달ᄒ면셔자연히녀성뎍편 심(女性的偏心)이발작되여『오 ㅣ분ᄒ이런놈은필경은 나와큰원수로ᄐ업시여노 니가무서다이업시면 놈인ᄌ게닛々니런협박을밧 고야살수가업ᄉ즉찰오리나 ᄋ목숨을자쳐ᄒ야나의원한을 갑호리라』ᄒ고『어머니-오 버지-나는죽습니다나죽은뒤 에원수ᄂ…』ᄒ 면서날카로운쥬머니칼도 씨인정업시목을질으고방 바닥에업ᄒ려졋다아-가이업 고불상ᄒ다사정업시들어군 칼날은상숙의목줄띄에쇼친 치로셔혈는림리ᄒ야자미 드운피속에싸인몸이되엿다

今春各學校 入學案內

입학할희망자는 본란을보시오

平壤府南山町 私立光成高等普通學校

이학교는평양(平壤)에셔웨우리인려사롬을가지고우수한인물을우리사회에다수히빈출ᄒ 가장유당이만흔종교의학교이다교장은미국긴넘비아디학 츌신김득수씨(金得洙氏)이오교원들은다년회외의유학ᄒ야 신사상신지식이가장풍부한교원들이이다어학교의

내용

은예술실과외비에완젼홈은이에말할것도업거니와지금셕지의사용ᄒ여오든광대훈교사(校舍)와넓은운동장에오히려부족홈감이유ᄒ야팔신여만원의거익을더져마즌편언덕우에수빅여간의새로운교사를건축ᄒ며그우예는실우광활한운동장을닥든중인바도금년니로락성ᄒ야무수만건우를수용ᄒ리라ᄒ다이번학긔에는입학싱뎡원이오십명과한년에약일빅오십명의입학싱을모집할터이라는

약간

입학자의자격은데외하년명을모집할터이라는 …보통학교졸업후조선어상의학력을가진자로품힝이방졍ᄒ고신톄가건강ᄒ며또학재계속ᄒ희망이확실한자로ᄒ다ᄒ며원셔데츌긔한은삼월이십구일셕지이오입학시험기일은월삼십일븟터시작ᄒ야본교시험과목은데일학년에입어산슐동의셰가지이며데이학년에입어한문산슐영어싱리등이라ᄒ며

신에지으뎌아구단(職業的野球團)을조직한다ᄂ디우리조션데육회에셔ᄂ그와갓ᄒ한번시험ᄒ야보나(一道藤家)△모의국못ᄒ야도지션인눌주장ᄒ던디인은공창폐지ᄂ가유향이니되ᄂ샤유ᄋ등경경ᄉ에있ᄂ은창기를범동디와평양으로ᄂ얼는보닌스스면픗ᄀ실힘은ᄒ얏지만은더욱더ᄒ거못ᄒᄂ지요중과문란이심ᄒ야큰거정이야(瀛東生)

입하ᄋ…여일ᄋ과 우리예 ᄋ무엇이기 에ᄂ 금ᄋ셩으로ᄂ 이리ᄋ가비ᄋ … 야 …ᄉᄋ 오리라ᄂ기라(평양)

婦人化粧品元祖

美術特製사구라白粉

百聞不如一見이올시다
弊所에셔新發明한櫻(사구라)粉은衛生上有益ᄒ고東西洋藥品十餘種으로多年研究製造ᄒ와顔面에雜氣를消滅ᄒ고色白潤澤ᄒ오로開業三週에到處婦人界에大歡迎을受ᄒ와營業이日就ᄒ오니同胞에愛顧ᄒ신厚誼를感謝ᄒ옵니다今에營業을大擴張키爲ᄒ와商標를特許ᄒ옵고迅速酬應ᄒ오니四海同胞는一次試驗ᄒ시면優劣을明確히分辨ᄒ시리다

登錄商標
京城府苑南洞一百二十五番地
櫻粉製造發賣所
長 吳榮根 白
事務主任 韓瓊采
取次電話光七〇二番 振替口座四六六番

京城寬勳洞一九六番地
朴德禽洋靴店
電話一四八三番
製造及修繕最高美 …
本店의技能特別廉價迅速 …
地方注文은代金引換함

移轉大擴張
本店이皮革販賣에多年從事ᄒ야無上ᄒ好評을博得ᄒ옴은江湖諸彦의賜愛ᄒ신所以오니良切感謝ᄒ오며今般表記處에轉店ᄒ는同時皮革은如前酬應ᄒ고牛皮毛皮牛油等屬을貿易及委託販賣ᄒ오니己往去來處는莫論이어니와新注文諸位도益加賜護ᄒ심을顒望ᄒ옵니다
京城鍾路五丁目九十一番地
和洋皮革 原料品 直輸入販賣 並 牛皮 毛皮 牛油 貿易 委託
㊎商 鍾路皮革商店
電話二四二八番 振替口座京城八六七九番
金在善支店
支店所在地
元山府新興洞七十九番地
咸興郡咸興面上里一四二番地
金在善支店

私立普成高等普通學校生徒募集
一學年生二百人
補習科五十人
各學年補缺生若干人
出願日字大正十年三月二十五日ᄭ지
試驗日字大正十年三月二十六日午前九時

社告
朴健守
右人은去一月二十四日解職된后다시本社에는何等關係가無ᄒ오니內外僉彦은照亮ᄒ시옵
朝鮮日報社 白

廣告
支店長募集
任地 京城
月收入 貳百圓以上
資金千圓乃至二千二百圓에資力이有ᄒ者
希望者는履歷書를携帶ᄒ고至急面談ᄒ시오
京城光化門郵便局前
東京또락구商會 監督部

小說 發展 (八八)

八八, 수남은 건너 흔고

삼랑이가 남보다 데리면저 선체로잇는 오마도 진실로마음으로 나오는것갓다 이것이 우리보고잇는 피의 인고 이것 무슨 철 오경은 오직 기가과힘뿐이다

강남의 김치에 따라서 이좌석 모인 여러손님 사이에는 이곳저곳서 칭찬ᄒᆞ는 말이 왼되엿다. 그중에도 흥용ᄒᆞ든 소이도잇고 흑은걸작이라고ᄒᆞ도잇스며 또는 커녀작이라고ᄒᆞ유입시 숙달ᄒᆞᆫ맛이 잇다ᄂᆞ니 잇섯다 이같이 못나자 다리시 격정ᄒᆞ는말이

『요다음막은 엇더ᄒᆞᆫ지』 ᄒᆞ는말씨지 서로 떠드는것이 녓다

얼마잇다가 경애와 오경은 또다시 단에 올나서 간단ᄒᆞᆫ 음악을 맛치고 데이막을 시작ᄒᆞ게 되엿다 이막은 처음보다 더여러사람의 마음을 쓰으럿다 그결과 이막은 데일막보다도 성공을ᄒᆞ엿다 이막과 삼막 사이에도 또ᄒᆞᆫ 경애와 오경의 음악이 잇섯다

예삼막은 오좌긱을 취ᄒᆞ게ᄒᆞ엿다 엇던때는 춤지못ᄒᆞ야 것부르짓는 소리가 좌중을 흔드럿고 또엇던때는 슬프고 답々ᄒᆞᆫ 눈물이 두얼굴에 흘너서 긋칠줄을 몰낫다 참으로 이와갓치 사람을 감동식히는각본은 근년으로 처음보이는것이다 그리고 민우 흔단ᄒᆞ엿이여 덕의게 이 빈하엿다 그중에도 부인 흔것을 이저바릴만치 감흔이 셧의 몃사름은 서로몸을 안고 손들기쉬지ᄒᆞ엿나다

예삼막이 끗나자 좌석에잇든 모든손님들은 예쥬와 오경의 압헤와서 집이업도록 칭찬을ᄒᆞ며 악수를ᄒᆞ엿다 이 악수에도 데일먼저시작ᄒᆞᆫ사름은 데일쇼스자리에 잇던강남이다 강남은 예주의 압헤서 누구던지 더드를만ᄒᆞᆫ 큰 목소리로

『안이이자리에서 이희곡을 드릿턴 이제 시연 기쁜 오늘저녁그대에 엇게된사람은 나뿐이다 오예쥬군그대는 참으로 너가 말을 그대로 실시를ᄒᆞ여 주어서 대단히감사흡니다 너가ᄒᆞᆫ말 그대로나의 『견파갓치 곳치기 때문에 가다가 던지고 위대ᄒᆞᆫ 힘이 낫하남니다 안이 그곳친곳은 비뇨열마에 지나지못ᄒᆞᆫ지라 또그런데 보면 적지안이ᄒᆞᆫ 진장ᄒᆞᆫ 가치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히 성각ᄒᆞ는바이다 믄첫번에 너가이작품을 조금만 곳치면 가장유망 갓다고ᄒᆞᆫ그 보는바이 또ᄒᆞᆫ 다른것이 안인가』

이러한 말이입에서 나오니서 츔으로 장관이다 그러나 오예쥬는 여러사람의 칭찬듯기에 정신을차리지못ᄒᆞ여 강남의말은듯지도 안이ᄒᆞ고 오엇골에 우승을띠며 일동의게향ᄒᆞ야

『감사함니다 고맙슴니다』

라고고키만숙이고 인사를ᄒᆞ얏이다 오유괴이도 어와갓치여러손님의게 감사ᄒᆞᆷ을 표ᄒᆞ얏이다

이와갓치 분주ᄒᆞ든 좌석이 조금정돈이되닛가 아경이가또 일어셔더니

『지금석지도 오예쥬의명예를 위ᄒᆞ여 희곡의비평을 여러분 압헤서바랄지만은 지금부터도 그쇼ㅅ지에 씨여잇는것파갓치 오유괴쇼져의 지은시를 한경이소져가 연々치못ᄒᆞ나마 독창을 ᄒᆞ겟슴니다』라고 말을ᄒᆞ엿다

말이 끗나자 여러사람들은 도도 각々그자리에 안젓다 그러나 그중에 강남이는 오직순서지를 보지못ᄒᆞ얏다가 이말을 듯고 비로쇼져자리에 안저서 그엽헤잇는 쇼서지를보앗다

강남이가, 이 쇼서를보고 그오유괴의 시라고ᄒᆞ는것을 보앗스면 얼마나 그마음이 또 거우 가슴이 씌를는지 알지못ᄒᆞᆫ 것이다 그러나 강을 갓흔 수단과 주엽과 다단ᄒᆞᆫ 래도로는 엇더ᄒᆞᆫ 설계가 이자리에서 나올는지 알수업는 이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알나고 할필요가 업다 차날자만 지나가면 자연히알 것이다 [illegible]

玄堂劇談 (39)

玄堂劇談 이라고ᄒᆞᆫ것은 玄堂이 演劇에對ᄒᆞᆫ 談話이니 新聞紙上의 記事로써는 그範圍가勿論狹少ᄒᆞᆫ것갓기도ᄒᆞ고 또우리 朝鮮파갓치 一般이演劇에對ᄒᆞᆫ 理解가업는 社會에서는 이글보기를 실타ᄒᆞᆯ는이도 만을것갓다 그러나演劇이 五大美術의 綜合藝術인 以上에는 이題目下에서 文學 藝術에關ᄒᆞᆫ 說文을 記載ᄒᆞᆯ 繪畫 音樂 彫刻 建築等 모든 利가 잇는줄안다 이제玄哲은 그專門인 劇의題目下에서 여러가지 姊妹藝術에 關ᄒᆞᆫ學說 隨筆 批評 紹介 感想或은 劇評도ᄒᆞ고 創作도ᄒᆞ야 우리 朝鮮日報 紙面의 一段을 빌어 主義主張을 讀者諸位의게 展開코자ᄒᆞ노니 萬一에 ᄒᆞᆫ사람이라도 이글을因ᄒᆞ야 藝術에對ᄒᆞᆫ理解力을 엇는다ᄒᆞ면 이곳나의크게 바라는바이다 또ᄒᆞᆫ 으로ᄒᆞᆫ마듸 ᄒᆞᆯ것은 新聞紙記事로써 時間上 推敲ᄒᆞᆯ 겨를이 업슴은 자못 遺憾이나 이는後日閒隙을 어더 改筆訂正ᄒᆞ기를기다리는것이다

演劇의 必要 (十九)
演劇에 對ᄒᆞᆫ 脚本의 本體 (二)

脚本이라고 ᄒᆞᆫ것이 第一로劇的이라야ᄒᆞ겟다는 것은 임의 大綱이라도 알앗슬듯ᄒᆞ다 그다음으로는 第二로 要件되는것은 脚本이 劇場的으로만 될수업다 萬一에 劇場的으로된 脚本이 잇다ᄒᆞ면 그것은 一時的物件에 不過ᄒᆞᆫ것이요 永久ᄒᆞᆫ 것은 안이다 永久的生命잇는 脚本은 劇場的인 同時에 文學的이라야 ᄒᆞᆯ것이다 오모리 劇場的 要件으로 事件의 마련이라던지 人物의 出入等이 充分히 配置되엿슬지라도 文學的要素도 人生의 眞意에 接觸되며『피이로쇼피이』를 含有ᄒᆞᆫ所謂深刻濃厚ᄒᆞᆫ 眞味가 업는脚本은 참으로 生命이 잇는 脚本이라고ᄒᆞᆯ수업다 그러ᄒᆞᆫ 一例로는『스크립』이나『코스치에에페에』살드어』갓치여러사람이 지은바劇本은 劇場的으로는 名作이라고ᄒᆞᆯ수잇지만은 이文學的保證이 업는 外國에 今日에와서는 그劇場的生命이 지도 薄弱ᄒᆞ게 되엿다 그러나『입센』갓흔이의 作品은 劇場的인 同時에 文學的內容을 包含ᄒᆞ엿슴으로 오늘날 그와갓흔 不朽의地位를占領ᄒᆞᆫ것은 實로偶然ᄒᆞᆫ 事가안이다 그러홈으로 우리가엇더ᄒᆞᆫ脚本이던지 이것을鑑賞ᄒᆞ라고ᄒᆞ면 반다시 劇場的 形式과 文學的內容을 包含ᄒᆞ엿는가 안이ᄒᆞ엿나 ᄒᆞ는것을 玩味ᄒᆞ야ᄒᆞ겟다

이러홈으로 脚本은小說보다도 相違ᄒᆞᆫ點이 實로만오니 小說에서는 반드시 對話中에서 人의 얼굴 形狀 動作또는 室內의 裝飾背景等外面的微妙ᄒᆞᆫ點에 一々히 具象的印象이 必要치안이ᄒᆞᆫ 境遇가 만치만은 脚本에는 이 外面的微妙ᄒᆞᆫ 印象을 一々히 浮出ᄒᆞ도록 ᄒᆞ는것이 가장必要ᄒᆞᆫ 것이다 그럼홈으로 小說家는 반다시 劇作家될수업는것이다 동키호오데를 지은 大文豪『세르반데스』의 偉大ᄒᆞᆫ 名聲이 嘖々ᄒᆞᆫ『세르바안데스』갓흔사람도 劇을지어 보앗스나 成功치못ᄒᆞ고 또露西亞의『도스토예쓰스키』도 作劇에 못보앗스나 小說에 成功ᄒᆞᆫ 이만치는 半分의 效果도업셧다 오즉『暗黑의 威力』이라는 脚本에 겨우 劇場的生命을 保全ᄒᆞᆫ 따름이다

脚本이라고ᄒᆞ는것은 이와갓치 離件이 添附되여잇슴으로 脚本이 오모리도 그本來의 性質上 約束ᄒᆞᆫ 必然的 것이다 우리는 脚本이 文學中에도 特殊ᄒᆞᆫ 位置를 占有ᄒᆞᆫ것이라는것을 이저서는 안이되겟다 다시말을 조곰仔細ᄒᆞ게 比喩ᄒᆞ여말ᄒᆞ라면 脚本은 비(船)와갓흔것이고 다른文學은 地上의 建築物파갓흔것이니 地上의建築物은 그中에 사름이住居ᄒᆞᆯ만ᄒᆞ면 그것이 阿房宮갓치 如何히 넓던지 細宥의摩天閣갓치 如何히 奇妙ᄒᆞ던지 相關이업는것이다 다맛 住居ᄒᆞ기 適合ᄒᆞ다는 條件만 具備ᄒᆞ면 內部가 如何ᄒᆞ던지 外形이 엇더ᄒᆞ던지 그것은 任意요自由이다

逆境悲哀煩悶에서 呻吟ᄒᆞ는 金兄東燮氏에게

仁川 一友 江村生

金兄! 予의 무엇보다도사랑ᄒᆞ는兄! 予가兄을 깁히알기는 僅過一個星霜이나 予는兄을어늬 程度ᄭᆞ지는잘理解ᄒᆞ고잘 짐작ᄒᆞ얏도다 同時에 兄도 幾分間 予를理解ᄒᆞ얏겟지? 안니兄外에는 予를理解ᄒᆞᆫ만ᄒᆞᆫ 知己가 엄마 ᄂᆞ 것이오! 然이나 兄의 態度가 近日에는 驚動ᄒᆞᆯ 만ᄒᆞᆷ 變化ᄒᆞ얏쇼 悲哀苦痛과 逆境煩悶에 不堪ᄒᆞ는 것갓히 뵈오 안니 그러ᄒᆞ오 予는 兄을 爲ᄒᆞ야 마다엇더ᄒᆞᆫ 點인지 予와一致되는 點이 有ᄒᆞᆫ것갓ᄒᆞ야 隱然中 무삼『빈 기』가 予의 頭腦波動을 이르커주어서 엇진지 兄을 生覺하지고 相逢ᄒᆞ얏스면 ᄒᆞ는 듯 싶을 맛게 되여서 못견ᄃᆡ는 境이요 異性間 갓ᄒᆞ면 此는 戀愛라고 ᄒᆞᆯ가? 故로 나의 熱烈히 親愛ᄒᆞ는 兄의 恒常 元氣업는 沈鬱狀에 任ᄒᆞᆷ을 보고 敢히 拙言으로 兄을 慰勞ᄒᆞ고 忠告ᄒᆞ자ᄒᆞ는바요 勿論 淺薄ᄒᆞᆫ者의 言이 엇지 兄을 慰勞ᄒᆞ겟쇼만은 親密ᄒᆞᆫ 友情의 一端이 될가ᄒᆞ오 또ᄒᆞᆫ 兄의 不平을 풀어 前파갓ᄒᆞᆫ 開城的兄 江華的兄이되란 말이오

金兄! 너머 悲觀치마시오 兄도己知ᄒᆞ는바와 如히 今日우리 靑年界의 思想을 살필진ᄃᆡ 그 何緣由ᄒᆞᆫ인지 大槪는 다ᅵ悲哀煩悶이 多ᄒᆞ고 또ᄒᆞᆫ 若干有志한 者라도 逆境의 困苦로 自身의 去就를 容易히 收拾치못ᄒᆞ야 空然히 暗憂에 彷徨ᄒᆞ야 絶叫ᄒᆞ는 事가 多ᄒᆞ니 그네들에게 그理由를 問ᄒᆞᆫ진ᄃᆡ 各自 答辯ᄒᆞ리다 兄도 此의 一人이지오 予도 此의 分子이지오 然ᄒᆞ나 吾人이 東西洋歷史를 考察ᄒᆞᆯ지라도 偉人英傑의 事業은 大槪는 逆境에 不在ᄒᆞᆷ이 무ᄒᆞ야 苦難의 事業 世情의 陳이 더옥 冷澹ᄒᆞ고 高尙ᄒᆞᆫ人格일수록 더옥 深刻치안쇼 金兄! 兄도 우시지오 우리가 自己의勞力을 修ᄒᆞ고서 엇지 能히 自己의 滿足을 得ᄒᆞᆯ수가 잇것쇼 世上의 모든 事業이 俳優에 依ᄒᆞ고 安逸에서 出ᄒᆞᆫ진ᄃᆡ 英雄이 안되며 偉人이 안되리오마ᄂᆞᆫ 偉大ᄒᆞᆫ 事業은 莫大ᄒᆞᆫ 勞力과 不撓ᄒᆞᆫ 勇氣를要ᄒᆞ는것이 안니오 故로 世人이 此를 仰ᄒᆞ고 此를 讚ᄒᆞᆫ 所以가 안니오 金兄! 落心치마시오 悲觀치 마시오 西哲이 云ᄒᆞᆫ되『煩悶이 有ᄒᆞ면 大ᄒᆞᆫ 成功이 有ᄒᆞ다』고 本聖도 云ᄒᆞ되『嵗寒然後에 知松栢之後凋라』ᄒᆞ얏스니 何의 煩민도 無ᄒᆞᆫ 者는 事業에 無ᄒᆞᆫ者오 逆境을 不過ᄒᆞᆫ 者는 事業의 眞髓를 不知ᄒᆞᆫ 者가안니오 金兄! 兄도 實로 人生 一世에 入ᄒᆞ든 初의 試驗을 課ᄒᆞ는 어니 煩민中에도 恒常 勞力을 不惜ᄒᆞ고 逆境에서도 恒常 意志를 變치마시오 우리가 此荒浪의 澎湃ᄒᆞᆫ 社會의 一大競爭場裡에서 生存ᄒᆞ야 所謂의 覇權을 掌握ᄒᆞ고 우리聲名을 四海에 喧傳코저 ᄒᆞᆯ진ᄃᆡ 決코 容易ᄒᆞᆫ 事라ᄒᆞ지못ᄒᆞᆯ것쇼 아- 사랑ᄒᆞ는 兄이여!

僅少ᄒᆞᆫ 障碍에 拘泥ᄒᆞ고 僅少ᄒᆞᆫ 失敗에 沮喪ᄒᆞ며 艱難에 畏縮ᄒᆞ고 壓迫에 拘泥되야 前進을 止ᄒᆞ고 中途에 絶ᄒᆞ면 到底히 成功의 彼岸에 達키 不能ᄒᆞ리니 百雷가 一時에 落下ᄒᆞ고 天地에 大震動이 有ᄒᆞ다ᄒᆞᆯ지라도 驚악치 안코 退却치안니ᄒᆞ야 此를粉碎치안니ᄒᆞ면 己치안는 誠實ᄒᆞᆫ 勇往邁進力이 無ᄒᆞ면 不可ᄒᆞᆯ것이오 兄! 이것이 恒常 兩人이 相論ᄒᆞ든것이 안니오 昨夏의 八阪公園에 갓슬 때와 其後도 沈兄과相會ᄒᆞ야슬時에 談論ᄒᆞᆫ 것이 안니오 終한ᄃᆡ 兄은 少々ᄒᆞᆫ 不平煩민에 부ᄃᆡ니ᄭᅵ여 初志를 貫徹치안코 世上을 厭ᄒᆞ니 惜哉라兄이여 다시ᄒᆞᆫ번 志風을 振ᄒᆞ며 以前파又 自身의 許ᄒᆞ는 江華的 金兄이 되구려 그리셔 精力의 全部를 傾注ᄒᆞ야 猛進ᄒᆞ며 力行ᄒᆞ며 奮鬪ᄒᆞ며 勞力ᄒᆞ여 봅시다 元來安逸遊惰에만 汲々ᄒᆞ야 貴重ᄒᆞᆫ 歲月을 空費ᄒᆞ는 薄志弱行의 徒와 浮浪悖類의 輩와는 不足與論이어니와 諺에『苦는 樂의 種』이라 안니ᄒᆞ얏소 靑年期에 困苦와 辛勞가 後에 安樂의 未來生活의 原動力이 되며 苦痛과 困難을 味嘗ᄒᆞ여야 不久에 成功의 圈內에 到達ᄒᆞᆷ을 得ᄒᆞ야 眞偷快樂이 生ᄒᆞᆫ도 것이오 金兄-兄파 沈兄 宜顯君파 趙女史와갓치 或日에 事務室 媛屆에『최오』에 依ᄒᆞ야 車座ᄒᆞ야서 四人이 同時에『人生最大恥辱은 何에在』라는 問題로 論議ᄒᆞᆫ 이 잇지 其時에 各々 所信을 發表ᄒᆞ야 會ᄒᆞᆯ 때에 不一ᄒᆞᆫ 點도 만이 잇셧지만은『人生이 人生된 所以를 盡치 못ᄒᆞ는 것이 一大恥辱이다』ᄒᆞ는 點에는 四人이 다 共鳴一致ᄒᆞ얏지 然ᄒᆞ고 兄은 更히 言ᄒᆞ되『우리는 家庭에도 社會에도 國家에도 一分子가되고 一成分이 되야는 뎌 能히 그 義務를 履行치 못ᄒᆞ니 豈稱人生이라』ᄒᆞ는 卑說을 發ᄒᆞ얏셧지 兄의 以上 言詞는 勿論 理가 包含치 안니ᄒᆞᆫ 것은안니오 그러ᄒᆞ지오마는 予는 다시 此의 布衍 衆他의 一說을 呈ᄒᆞ고저ᄒᆞ오『人生最大恥辱은 何에 在ᄒᆞᆫ고ᄒᆞ니 自己의 才幹을 發揮ᄒᆞ고 自己의 精力을 縱橫無盡히 活用ᄒᆞ야 金城鐵壁이라도 粉碎ᄒᆞᆯ 勞力이 無ᄒᆞ고 逆境에 沈淪ᄒᆞ야도 蹶然히 勇往邁進코져 ᄒᆞ는 勇氣도 無ᄒᆞ고 生活을 堪耐ᄒᆞ며 健全ᄒᆞᆫ 身體와 足히 奮鬪勞力ᄒᆞᆯ 實力이 有ᄒᆞ면서도 此를 發揮치 못ᄒᆞ야 徒然히 遊戱의 圈內에서 彷徨ᄒᆞ다가 一次自己의 逆境에 動이 起ᄒᆞ며 驚악ᄒᆞ고 恐惧ᄒᆞ야 도되여 絶望悲觀에 終ᄒᆞ나니 此가 長老人生의 最大恥辱이 안인가요』予는 逆境에 鬪ᄒᆞ야 勇者가 되는 것이 無ᄒᆞᆯ가 ᄒᆞ는바오. 金兄-우리가 地位境遇에 苦를 同ᄒᆞ고 逆境에서 彷徨ᄒᆞ며 煩민에서 呻吟ᄒᆞ이 恰似ᄒᆞᆫ 故로 此를 記述ᄒᆞᆫ 바이올시다

아- 然이나 金兄이 世上의 從事를 보시오 엇지 寒心ᄒᆞ고 哀情치안니ᄒᆞ리가 逆境에 處ᄒᆞ야 衣食을 要有ᄒᆞ는 者는 悲哀를 要ᄒᆞᆫ 者는 品性이 陶冶되고 勞力의 機會가 多ᄒᆞ며 品性陶冶의 機會가 多ᄒᆞᆫ 者는 또한 成功의 効가 亦多ᄒᆞᆫᄃᆡ 現今 寒心ᄒᆞᆯ 者는 衣食이 足ᄒᆞ고 薄志弱行의 徒와 浮浪悖類의 輩가 多ᄒᆞ야 [illegible] 志士의 高節은 [illegible] 라오 嗚呼라 [illegible] 予는 後에 [illegible] 으로 忠告ᄒᆞ노니 逆境이라는것은 自己修養上에 最有利ᄒᆞ고 將來를 미루어 가장幸福이라ᄒᆞ노니 金兄 너머 過度히 悲觀치말고 悲哀치 말지어다. 古來로 成功한 者의 多數는 幼時로브터 逆境에 在ᄒᆞ야 悲戚苦鬪로 逆境을 征服ᄒᆞ야 써 偉大ᄒᆞᆫ 名聲을 傳ᄒᆞᆷ이 안인가 大번민 大失敗로도 勇往邁進한 結果가 안인가 아- 逆境에 在한 兄 悲哀번민ᄒᆞ는 東燮兄 코 悲觀만 ᄒᆞ지말고 江村弟와 如히 洒々落々ᄒᆞ야 春風을 雨로 지니다가 時機를 勿失ᄒᆞ고 奮起猛進ᄒᆞ시요 然ᄒᆞ면 所得이 有ᄒᆞᆯ 것이오 孟子曰『天將降大任於是人也ㅣ 必先苦其心志ᄒᆞ며 勞其筋骨ᄒᆞ며 餓其體膚ᄒᆞ며 空乏其身ᄒᆞ야 行拂亂其所爲ᄒᆞ나니 所以動心忍性ᄒᆞ야 增益其所不能이니라』ᄒᆞ얏지오 此名文一節은 江村生이 心火가 發生ᄒᆞᆯ 時에는 五六年以來로 數次式 朗讀ᄒᆞ는바이니 兄도 不平과 강慨之心이 生ᄒᆞᆯ 時에 此文을 誦ᄒᆞ라- 親愛ᄒᆞ는 金兄이여 相携同伴ᄒᆞ고 彼岸에 渡ᄒᆞ 東燮兄이여-(完)

地方通信

文社團에 贊成金

今般 迎日靑年會 文社團一行이 二月二十一日부터 同二十六日ᄭᆞ지 浦項 [illegible]舘內서 連日 大活劇을 興行ᄒᆞᆷ은 本報에 旣報ᄒᆞ얏거니와 該地方有志諸氏의게 多大ᄒᆞᆫ 歡迎을 博得ᄒᆞ야스며 右 文社團에 贊成金을 贈ᄒᆞᆫ 氏名과 金額이 如左ᄒᆞ더라(浦項)

一百圓 朴九汝, 五十圓(達城舘主任)朴[illegible]彦, 四十圓(浦項西長)鄭鋪根, 三十圓 鄭文玉, 二十圓 鄭致先, 二十圓 鄭晩, 二十圓 鄭德三, 十圓 金德文, 十圓 李春五, 十圓 鄭[illegible], 十圓 池元俊, 十圓 金鳳均, 十圓(神光洞)李鉉文, 十圓 金寶祚, 十圓 金用柱, 十圓 金在[illegible], 十圓 趙鳳植, 十圓 李雪香, 十圓(妓生)部竹林, 十圓(妓生) 崔鶴喜, 五圓(洋靴店) 金光立, 五圓(鶴山洞)文佑, 五圓(東萊邑內)朴奄全, 五圓 朴萬玉, 五圓 李炳華, 五圓(妓生) 李小香, 五圓 李起春, 五圓 玄相運, 五圓 朴道源, 五圓 河士玉, 五圓 金斗淡, 五圓 朴敬文, 五圓 金牛文, 五圓(妓生)金珠, 五圓 李敬宰, 十圓 鄭用守, 五圓 金玉蓮, 五圓 金明九, 五圓 妓姜春香, 四圓 鄭衛堂, 三圓 馬其成, (代書人)宮崎其之助, 三圓(銀行)金在孝, 三圓 泰復商會支店, 三圓 李起烈, 三圓 啓文印刷所, 三圓 鄭利五, 三圓 李大用, 三圓(醫師) 鄭基昌, 三圓 李南河, 三圓 鄭學瑞, 一圓 金士元, 三圓 金連洞, 三圓 鄭相基, 一圓九十錢 金老東, 二圓 金海南, 二圓 李永植, 二圓 尹[illegible]三, 二圓 孫元連, 一圓 宋致[illegible], 一圓 金[illegible]玉, 二圓 韓泰文, 二圓 徐九燮, 二圓 韓斗煥, 一圓 南武子, 二圓(平湖[illegible]) 崔慎浩, 二圓 [illegible], 一圓 朴[illegible], 李元吉, 二圓 李[illegible], [illegible]五植, 二圓 吳[illegible], 一圓 李得仲, 一圓五十錢 李[illegible]世, 一圓 壽坂一郞, 一圓 孔[illegible]得, 一圓 鄭奉基, 一圓 [illegible]主任, 一圓 金帶林, 一圓 崔[illegible], 一圓 白金順, 一圓 李春三, 二圓 [illegible]

合計六百二十五圓也

貴金屬 裝身具 製造 時計眼鏡 商
所本町四丁目
糸岐商店
振替京城七七〇番

三月五日寫眞 全部差換
米國유니버-살社 喜劇 小舍芝居 全一卷
米國유-니버쌀社 滑稽 돈 다 贈物 全一卷
米國유-니버살社 人情劇 指示는指 全五卷
連續探偵大活劇 米國오리우아會社 第五回 空中魔 三十一卷內의四卷 第九篇 地下 第十篇 猛火
豫告
次週부터當館에 現ᄒᆞᆯ 유社大活劇連續寫眞은何?
優美館 電話 三一六番

祝珍島支局發展
全南 珍島
郡守 權賢燮
道評議員 韓明履
巡査部長 李榮旭
前郡參事 朴吉培

補陽丸
(定價) 一個月分 一劑 八圓 十五日分 半劑 四圓五十錢
凡人에 第一元陽腎氣不足은 氣虛, 陰虛, 神經衰弱, 房事過度, 病後虛弱, 諸症으로 起生ᄒᆞ는것이오니 元陽을 壯補ᄒᆞ며 益氣ᄒᆞᆷ에는 速히 此補陽丸을 服用ᄒᆞ시오 此補陽丸은 元陽腎氣不足에 經驗專門特效劑라 此效力을 勿論試用ᄒᆞ야 보시면 服藥一週內에 偉大ᄒᆞᆫ 效能의 責任을 保證홈
(主治效能) ◇元陽不足 ◇腎氣不足 ◇陽萎不起 ◇神經衰弱 ◇氣虛血枯 ◇陰虛火動 ◇精神多忘 ◇房事困難 ◇筋肉衰敗
京城府樓西洞七十番地 宇濟堂藥房 主 張湳
振替京城七六六九番

快大治丸
本丸은 二十年以上年久慢性의 梅毒과 其他六〇六號의 見効치못ᄒᆞᆫ 痼症과 金石劑, 梟藥劑로 無効ᄒᆞ든 痼症과 普通他藥으로 完治치못ᄒᆞᆫ 痼症은 此快治丸을 服用ᄒᆞ시오 撲滅ᄒᆞ야 更不再發케ᄒᆞᄂᆞᆫ 特點은 先服諸氏의 公認ᄒᆞᄂᆞᆫ바요 本藥房에셔 擔保ᄒᆞᄂᆞᆫ 永年根治之劑요
定 十日分 金一圓, 廿日分 金一圓八十錢, 三十日分 金二圓五十錢, 特製 金四圓
京城鍾路二丁目 二十一番地 普仁堂藥房
振替京城 五一六一 金東遠

本商會에서 最上等原料로 堅實美麗히 製造販賣ᄒᆞ오니 四海諸賢은 一次試用ᄒᆞ시오
商品目錄無代進呈
皮革洋靴, 護謨洋靴, 고무洋靴 各種大賣出
現時定價表
福壽短靴 十圓 最上十二圓
짓도短靴 十四圓 最上十六圓
福壽淺고무靴 十二圓 最上十四圓
짓도淺고무靴 十六圓 最上十八圓
福壽編上靴 十二圓 最上十四圓
짓도編上靴 十六圓 最上十八圓
福壽經濟靴 五圓 最上六圓
本屬經濟靴 三圓 最上三圓五十錢
但純고무靴의 定價는 大小에 依ᄒᆞ야 區別이 有ᄒᆞ오니 定價表를 請求ᄒᆞ시옵
獨米式洋靴商會 主 鄭桂鉉
京城鍾路 [illegible] 振替口座五〇六一番 地方에ᄂᆞᆫ代金引換

高麗太祖 全一冊 定價八十錢
太祖ㅣ 仗劍起義ᄒᆞ야 統定三國ᄒᆞ고 歷年五百ᄒᆞ니 天生聖人이 豈偶然哉아 龍顔日角은 與漢祖唐宗으로 同ᄒᆞ고 而齡達大度에 仁明이 過之로다 破百濟合新羅에 高麗降王ᄒᆞ고 化育黎庶ᄒᆞ니 試問古來帝王에 有此者ㅣ 幾人고 卽東西兩洋에 罕有其匹也니 乃得之ᄒᆞ야 周武가 有慚이오 守之也ㅣ 順ᄒᆞ야 漢文이 致隆이라 盜曰神聖이 非過語也로다 今其創業記는 婦人孺子가 皆能暗誦ᄒᆞ니 可見古都遺民이 不忘舊君ᄒᆞ야 千載不泯이로다 至於語或不經에 涉於渺茫者ᄂᆞᆫ 因當時事情이오 而亦稗史之慣例니 何足深究리오
世界百傑傳(二) 定價各八十錢 書留郵稅十錢
時事講演錄 第二集 定價七十錢 書留郵稅十錢
火輪船發明 定價各六十錢 書留郵稅十錢
歐美新人物 定價三十錢
演說及式辭法 定價七十錢 書留郵稅十錢
京城府樂園洞百三十二番地
大昌書院 振替八八六三
普及書館
主 玄公廉 振替貯金口座京城八七二一

五癩速治之最新發明劑
天一瘋疾卽鮮散
主治 諸般癩疾專治
定價 一週日分 一匣 金二圓
京城府齊洞百七十九番地
製造本舖 天一藥房

壽康은 人皆所望
始皇之求仙藥과 武帝之設露盤이 總是延壽之策이라 若使二人으로 在於此時면 一生에 長服天力丸이러라 天力丸은 人의 血을 補ᄒᆞ며 筋骨을 强壯케ᄒᆞᄂᆞᆫ 力이 大ᄒᆞ야 健康益壽ᄒᆞᄂᆞᆫ 良藥이니 天力丸에 功德이 至大ᄒᆞ도다
効力 ◎壯筋補血 ◎夜夢遺洩 ◎先天不足 ◎神經衰弱 ◎面黃骨瘦 ◎氣虛血枯 ◎陰虛火動 ◎精神困倦
定價表 一個月分 四圓五拾錢 二個月分 八圓五拾錢 三個月分 拾貳圓
京城府西小門外四街里
本舖 洪濟堂藥房
電話 二六五四番

診療開始
齒科 口腔科 外科
半島齒科醫院
西小門町一丁目一八四(前黃土峴) 電話 二〇九
(但日曜) 貧困患者 治療

開業廣告
今般左記場所에 東西洋料理店을 二月十一日부터 特設ᄒᆞ고 [illegible] 試遊ᄒᆞ심을 望홈
本館의 四大特色
一, 迅速簡易 二, 親切叮嚀
三, 料理美味 四, 廉價提供
京元線平康邑內
東西洋料理 鮮一館
館主 崔舜鳳
專務 李炳璨
藝妓 高山[illegible]
同 金淵玉
同 表[illegible]仙
同 林敬善
同 金英姬

◎廣告◎
今般本人이 經營ᄒᆞᄂᆞᆫ 永光木工商會ᄂᆞᆫ 多年百鍊木工場을 經營ᄒᆞ든 金百鍊氏를 고빙ᄒᆞ와 東西洋各種式室內屋外粧飾品及家俱木造物을 精美且堅ᄒᆞ고 優良且巧ᄒᆞ도록 製造ᄒᆞ와 勿論大小ᄒᆞ옵고 迅速酬應ᄒᆞ오니 內外國僉位ᄂᆞᆫ 倍前愛顧ᄒᆞ심을 千萬伏望ᄒᆞ옵나이다
京城府授恩洞六拾八番地
永光木工商會
主 韓永錫
電話取次 二九五一番

梅毒根祛丸
梅毒專門劑
定價 一週日分 貳圓五拾錢 五週日分 五圓
本劑ᄂᆞᆫ 二三期及年久慢性의 梅毒은 勿論ᄒᆞ고 六〇六號와 其他金石劑에도 見効치못ᄒᆞᆫ 人士ᄂᆞᆫ 普通藥으로 誤認치마시고 更不再發케ᄒᆞᄂᆞᆫ 梅毒根祛丸을 服用ᄒᆞ와 永久根治케ᄒᆞ시오 [illegible] 郵料四拾錢을 本舖에 負擔ᄒᆞ고 引換代金注文이면 郵料切手를 先送치안으면 [illegible]
京城府鍾路[illegible]百番地
製造本舖 漢城藥館
振替京城 三七〇六